

지역대학위기 극복위해 하나로 뭉쳤다

전북지역대학 발전협의회 창립회의 개최 · 17개 대학 참여 · 학사교류 강화 · 비대면 원격교육 활성화 공유 등 협력 다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 등이 불러온 지역대학의 위기에 도내 대학들이 하나로 뭉쳤다.

전북지역대학 발전협의회(발기인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가 24일 전북대 진수당 2층 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이날 참여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농수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육대, 전주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예수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한일장신대 등이다.

이번 창립회의에는 전북대 김동원 총장과 발기인인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을 비롯한 17개 대학 기획처장간이 참석, 회의를 심의하고 회장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은 이 협의회를 주도한 전북대 정용채 기획처장이 맡게 됐다.

지역 대학의 공유와 연대의 비답에 전라북도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해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이날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우선 대학들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내 대학 간 학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대학별 교육과정과 교류방법, 시기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학사교류 모델을 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뉴 노멀로 자리잡은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활성화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전북대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 사업에 선정되며 시작된 것으로, 전북대와 전주비전대

가 주관대학으로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호원대, 군장대, 예수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한일장신대 등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한다.

또 올해 권역 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대학 간 학점교류가 가능한 교과목 콘텐츠도 개발 지원한다.

김동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처한 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17개 대학 기획처장 주도로 추진되는 전북지역대학발전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대학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초대 회장을 맡은 전북대 정용채 기획처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협의회가 대학의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도내 홍보 · 탐사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가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2기 JB 국가대표 146명을 권역별로 청룡대, 현무대, 백호대, 주작대로 나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지역 홍보 및 탐사를 통해 애항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청룡대와 현무대는 지난 19일 각각 마안산과 모악산 하이킹 활동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및 친환경 활동 실천으로 대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했으며, 백호대는 20일 부안 곰소 일원에서 홍보 활동 및 추적과 기호를 통한 미션 해결 체험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했다.

주작대는 25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을 기원하는 선운산 하이

킹에 나섰다. 등산을 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잼버리 홍보 및 친환경 활동을 전개했다.

홍보 활동은 반별(10~15명) 소규모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효율적인 체험활동으로 운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원들이 우리 지역 탐사를 통해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본 소양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잼버리 홍보 활동으로 잼버리 참가 대원 증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선발한 홍보대사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46명으로 구성됐다. /정은성 기자

솔내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시범 운영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솔내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단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새로 조성된 풋살장을 등재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후 정식 개장 전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화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며, 공원 관리사무실을 거쳐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마친 뒤 입장할 수 있다.

풋살장 신규 조성으로 솔내생활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은 총 5개로 늘었다. 솔내생활체육공원은 풋살장을 비롯해 천연잔디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을 갖추고 있다.

백순기 이사장은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며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와 볼보트럭코리아.

자동차 산업 발전 기여 기술의 신정보 공유

줄포자동차공고 - 볼보트럭코리아, 산학 협약 체결

전북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고등학교인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교장 심재동)가 볼보트럭코리아(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줄포자동차공고와 볼보트럭코리아(주)는 지난 24일 산학협력 협약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기술의 새로운 정보 공유 ▲현장실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수 ▲자동차 정비 분야의 전문 기능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4명이 전주 한진보서비스 관광 볼보서비스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기업 역량강화 캠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들의 마케팅 및 온라인 유통 역량 확보를 위해 마케팅 역량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진흥원, (사)글로벌청년벤처협회 등과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는 24일~25일 양일 간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초기 창업기업 1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캠프는 비대면 시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NS홈쇼핑, 아마존 입점 강의 및 온라인 마케팅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창업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랜선마켓에 대한 실질적 설명과 더불어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어져 초기 창업기업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됐다.

특히,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참여 기업들에게 하반기 라이브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 유통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해 초기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신선이 마시는 천상의 다섯가지맛!

오미자! 명품 오미자 와인과 함께 품격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www.장수몰.com 장수몰 JANGSU MALL

NAVER 장수군청 검색

Tel. 063)350-5448